금수강산

2

주체107(2018)
루계 제342호 월간

 ISSN 1727—9062

사회주의전진가

작사 리지성
작곡 김운룡

열광적으로 (♩=120)

B♭ Cm7 F7/A F7 B♭
1. 산 악 이 막 으 면 폭 풍 쳐 넘 고 격 랑 이 막 으 면 뚫 고 헤 친 다 번

B♭ E♭ Cm Cm7 F (후렴) F7
영 의 모 든 꿈 이 룩 해 가 는 우 리 를 - 누 가 막 으 랴 전

B♭ Cm7 F4/B♭ F7/A D7 Gm Gm7
진 또 전 진 신 심 드 높 이 전 진 또 전 진 용 기 백 배 해 우

E♭ F7 Fm6/A♭ G7 Cm F7 B♭
리 당 이 끄 는 사 회 주 의 는 힘 차 게 전 진 해 간 다 -

2. 일심의 힘으로 나가는 우리
제힘을 믿고서 강해진 우리
떨쳐온 승리를 계속 이어서
더 큰 승리 안아오리라
(후렴)

3. 수령 당 인민이 하나로 뭉친
강국의 이 기상 꺾을자 없다
진두에 위대한 당기 날리는
이 길은 승리하는 길
(후렴)

그리움의 마음 안고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며 마음쓰는 어머니처럼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을 뜨거운 한품에 안아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오는 뜻깊은 광명성절의 아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은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고있다.

본사기자 최원철 주체106(2017)년 2월 촬영

차 례

평양시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3(1984)년 8월

인민의 웃음 꽃피는 강산

오래전에 창작되였지만 오늘도 조국인민의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불리우는 노래가 있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가 그러하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폈소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오
…

근면하고 성실하게 바친 노력이 알알이 열매로 무르익어 자기의것, 우리의것이 되는 세상, 처녀들이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는 아름다운 고향, 자기의 땀으로 가꾼 열매를 앞에 놓고 온 가정이 웃고 온 마을이 웃고 온 나라가 웃는 이런 세상이 사회주의조국임을 정서깊이 구가한 노래이다.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여 그것이 모든 생활의 꽃으로 피여나는 이런 조국의 모습은 인민이 꿈과 리상으로만 그려온 세계, 사회주의강국의 모습이다.

인민의 그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펴가신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의

대명사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라는 말을 자주 외운다. 바로 그 말속에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깃들어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산들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따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창성군의 깊은 골과 험한 산발들에도 그이께서 황금산의 새 력사를 창조해주신 뜻깊은 사연이 있고 양덕군 은하리의 구지골에도 이곳 농민들이 잘살 방도를 가르쳐주신 이야기가 있다.

해방후 양덕군 은하리의 구지골은 너무도 깊은 산골이여서 차길도 없는 곳이였다. 하지만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그곳으로 걸어서 들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농민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으시면서 그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그곳 일군과 함께 산에 오르시여 이곳에 어떤 산열매와 산나물이 있으며 마을의 로력자수로 산열매와 산나물을 얼마나 거두어들일수 있는가를 계산까지 해보시며 그 가공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산골마을아이들을 위한 학교터전까지 잡아주시며 이곳 농민들이 살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하여 궁벽하던 이 산골마을이 천지개벽할수 있었으며 인민의 웃음넘치는 곳으로 되였다.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산간지대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벌방지대에 가시여서는 몇개 도만 잘살아가지고는 안된다고, 어느 도, 어느 군 할것없이 다 같이 잘살게 하여야 한다시며 수첩에 못사는 고장들의 지명을 다 적어가지고 다니시며 잘살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은정깊은 사랑으로 그곳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안겨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많고많다.

이렇듯 뜨거운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가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하신 인민, 그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황금벌을 가꾸어가시기 위해 바치신 로고와 헌신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느해 이른새벽이였다.

선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리의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을 보게 되시였다. 그것을 보시는 그이의 가슴속에 먼저 떠오른것은 이곳에서 일하느라 불편해할 농민들의 모습이였다. 사실 이곳 농민들은 뙈기논에는 기계를 댈수 없어 농사일을 손로동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이 횡포해지고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한 상태여서 토지를 정리할념을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나라의 모든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시키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이께서는 토지정리를 진행할 결심을 내리시였으며 이 투쟁에로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시였다. 하여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벌어지게 되였으며 이어 정리된 전야들에 생명수가 흘러들 자연흐름식물길공사도 진행되게 되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를 생각하며, 변모되는 전야를 바라보며 인민들은 그이께서

산열매따기에 신바람이 났다.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한드레벌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가 무엇을 위한것이며 황금벌의 래일이 어떤것인가를 새겨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심고 가꾸어주신 황금산, 황금벌의 사랑의 력사로 하여 조국땅에서는 산은 산마다, 벌은 벌마다에서 풍요한 가을이 무르익어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지난해에만도 창성과 양덕 등에서 수많은 산열매와 산나물, 약초들을 거두어들이고 북청과 과일군 등에서는 과일풍작으로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였는가 하면 다수확군, 다수확농장들이 계속 늘어나는 속에 삼지강협동농장과 배천군 등은 물론하고 산골군인 금강군에서도 풍작의 통장훈을 불렀다.

산도 벌도 인민을 위한 황금산, 황금벌로 가꾸어지는 조국땅에 이제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말만 들어도 비린내가 물씬 풍기며 산더미처럼 쌓이는 물고기가 눈앞에 어려와 마음마저 즐겁게 해주는 그 부름 황금해,

나라의 곳곳에 바다향기 차넘친다.

인민의 기쁨넘치는 려명거리

이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실 조국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의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던 곳이 수산부문이였다. 하여 이 부문에 대한 그이의 관심은 남다른것이였다. 더우기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공급해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시여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아주신 문건도 인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이였다는 가슴뜨거운 사실은 그이로 하여금 수산부문을 무조건 추켜세울 의지로 불타게 하였다. 비내리는 포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산사업소들을 찾고찾으시였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배에 오르시여서는 어로공들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인민들의 식탁을 풍족하게 해주자고 힘과 용기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위훈을 창조하였을 때에는 그들모두를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부르시여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한사람한사람 몸소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신 그이의 사랑은 진정 끝이 없었다. 그것은 물고기를 받아안으며 기뻐할 인민의 모습이 한가슴에 안겨와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한 인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시였다. 보양생들이 물고기를 실은 차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광경, 생선국을 맛있게 먹는 원아들의 모습,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이 신바람나게 집집으로 물고기를 날라가는 광경 등 그것은 너무도 평범한 모습이였지만 그이께서는 내내 웃으시며 한장한장의 사진들을 보고 또 보시였다. 그리고 너무도 기쁘시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갑시다라고 친필을 보내주신 그이이시다.

참으로 인민의 웃음을 위하여 또 그 웃음이 모든 생활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도록 조국땅을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며 이런 인민사랑의 세계를 대대로 받아안는 조국의 복받은 강산,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자기들의 웃음소리가 보다 높이 울려퍼질 사회주의강국을 위하여,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눈부신 모습이 더 보란듯이 펼쳐질 래일을 위하여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홍 훈

◇ 일 화 ◇

최상의 일

인민을 위한 일을 최상의 일로 간주하시고 여기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수령님의 수첩

주체62(1973)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이날 대동군의 농장원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사를 잘 지은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농민들에게 무슨 상품이 더 요구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때 한 농장원이 별로 요구되는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지금에 만족해하지 말고 더 풍족히 갖추어놓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것이라도 좋으니 다 말하라고 하시였다.

이윽고 한 녀성이 일어나 작업복감으로 쓸 질긴 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질긴 천이라, 좋소.》라고 하시며 그것을 수첩에 적어넣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장원들을 보시며 또 말하라고 하시였다.

한 처녀가 색고운 세타와 주름치마가 더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 《색고운 세타와 주름치마라…》라고 하시며 수첩에 적어넣으시는데 이번에는 한 청년이 일어나 고급손목시계와 여러가지 모양의 구두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고급손목시계》, 《여러가지 모양의 구두》 하시며 수첩에 또박또박 적으시였다.

나이든 한 녀성이 일어나 큰 가마가 더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올렸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소한 것까지 수첩에 다 적으시였다.

이튿날 그이께서는 수첩에 적으신 상품목록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토론하시고 그 모든것을 전국의 농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제일 큰 기쁨

주체71(198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평양의 문수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거리의 기본도로에서 차를 세우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살림집 층수와 해비침상태, 상업봉사망과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헤아려보시였다.

승용차가 불빛이 환히 흐르는 한 살림집앞에 이르렀을 때 그이께서는 또다시 차를 세우라고 하시였다. 승용차가 멈춰서자 그이께서는 거리를 내다보시다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였다. 그 시각 그이께서는 불밝은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계시였던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도 저 웃음소리를 듣는가, 그전엔 개구리울음소리만 들리던 이 문수벌에 오늘은 현대적인 도시가 일떠서 저렇게 창가마다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도 귀를 강구었다. 살림집들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그이의 제일 큰 기쁨이였다.

이날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웃음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모습이였다.

류경원이 전하는 사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류경원건설장을 찾으신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1층에 있는 한증칸을 돌아보시며 열손실을 막을수 있는 방도와 물소독과 려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그이께서는 2층에 있는 여러 한증방을 돌아보시면서도 인민들이 한증을 더 편안하게 하도록 의자도 좋은것으로 놓아주어야 한다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미안실과 랭실, 그 누구나 무심히 스쳐지나치던 리발실의 소독수와 목욕탕리용질서알림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부족점들을 일깨워주시며 그 극복방도를 가르쳐주실 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이날 그이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하는 날까지 일을 잘 하여야 한다고,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봉화》비누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 평양시안의 여러 백화점, 상점들에서 판매되는 《봉화》비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

주체100(201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사실말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아주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봉화》라는 글자가 찍힌 비누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있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공장이였던것이다.

이날 공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뜻밖의 영광을 받아안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우리들에게 봉화비누공장은 인민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공장이라는 믿음어린 교시를 주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걸음을 옮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나는 비누생산공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올리였다.

콤퓨터조종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콤퓨터화면에 펼쳐진 원료정제공정과 인쇄절단공정, 포장공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이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애를 쓴것 같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비누생산현장을 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현장으로 가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으시였다.

순간 나는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신춘애(가운데)

현장으로 가자면 높은 계단을 내려서야 하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높은 계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의 가슴은 막 조여들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비누생산현장으로 가자면 높은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데 그래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발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대사로 여기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를수록 나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것은 우리 공장에 오시기 전에 벌써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고오신 걸음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다나니 그이의 육체적피로는 헤아릴수 없었다.

만류하는 일군들을 뒤에 두시고 현장에 들어서시여 흐름선을 타고 나오는 세수비누의 향기와 질도 친히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줄줄이 내려오는 빨래비누 한장을 집어드시고 거품이 잘 이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다.

생산공정을 다 돌아보시고 다시 높은 계단을 올라 콤퓨터조종실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봉화비누공장에서 질좋은 비누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질좋은 비누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공장에서는 새 세기의 세계적추세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화생활수준에 맞게 비누의 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을 더 빨리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한장의 작은 《봉화》비누, 정녕 이 하나의 소비품에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우리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가슴에 새기고 금강약돌세수비누, 우유향세수비누, 참숯비누를 비롯한 새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였으며 생산을 더 늘이였다.

나는 공장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가슴에 새기고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더 잘하여 질좋은 《봉화》비누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우리 공장이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봉화비누공장 지배인 신춘애

완공된 병원을 찾으시여

우리 류경치과병원으로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치료실들에서 각이한 의료봉사를 받고 밝은 얼굴로 병원문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완공된 병원에 모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이 눈에 선히 안겨옵니다.

주체103(2014)년 3월 2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별도 없이 불쑥 우리 병원에 찾아오시였습니다. 두차례나 병원건설장을 찾으시여 손색없이 건설되도록 로고를 바치신 그이께서는 치료를 받는 인민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또다시 병원에 나오시였던것입니다.

병원의 일군들과 의사들, 치료받던 인민들은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경사와 행복으로 하여 저저마다 그이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그이께서는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1층홀에서 한 어린이를 껴안아주신 그이께서는 이발치료를 받으러왔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고 소아치과에 들리시여서는 치료를 받는 학생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다가 아이들에게 이발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서 부모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부모들이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다심한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 어린이놀이장을 보시며 놀이장에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병원에 어린이놀이장을 꾸리기 잘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저의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고 더우기는 오랜 기간 의료사업을 해온 의료일군입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 치료를 받으러오는 환자나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병원설계에도 없던 어린이놀이장을 꾸리도록 해주시고 설비구입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이 마음쓰시였던것입니다.

어린이놀이장이 훌륭히 꾸려져 아이들은 병원이라는것도 다 잊고 마음껏 뛰놀고 그의 부모들은 마음편히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이였습니다.

보철과의 치료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치료를 받던 한 할머니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의사에게 치료정형에 대해 물어도 주시고 할머니를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주라고 따뜻이 이르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한 치료실에 들리시여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정답게 바라보시며 치료를 하자면 시간이 보통 1시간반정도 걸리는것만큼 치료실의 벽들에 액정텔레비존을 설치해주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영화도 보고 화면음악도 들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도 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병원을 다 돌아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특히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류경치과병원을 건설하기 참 잘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류경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간직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땅에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아무리 모진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리고있는것입니다.

저는 류경치과병원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병원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치료예방사업에 정성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류경치과병원 1부원장 리명철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호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1일 주체107(2018)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서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올해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으며 금속공업부문이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는것이다.

또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고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앙양을 일으키는것이다.

또한 군민이 힘을 합쳐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으며 산림복구전투성과를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는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는것이다.

그리고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례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항쟁에 의하여 파쑈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였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수 없을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할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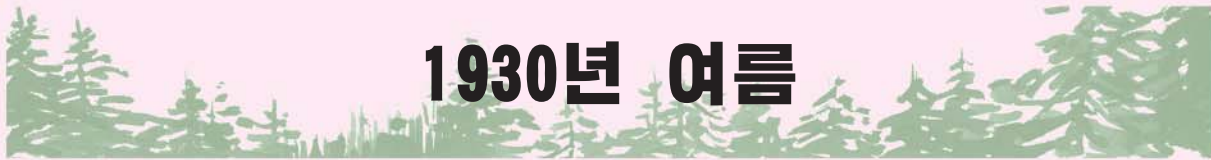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의 마지막부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 * *

1930년 여름

(전호에서 계속)

밭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후에야 아주머니는 나에게서 아이를 받아내리였다. 그때의 일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탐정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나는 내 이름을 제대로 대줄수가 없어 가명을 대고 그저 혁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인은 자기도 혁명을 하던 사람인데 조직과의 련계가 끊어져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하면서 앞집에 큰개(밀정)가 있으니 주의해야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이 한광은 북만으로 뛰고 한영애는 탄압이 심하여 늘 피해다니는데 지금 그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다는것이였다.

그런 말까지 듣고나니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앞집에 밀정이 있으면 이 집에 그냥 머물러있을수도 없었다. 집에 숨어있다가 정세를 봐가며 다시 돈화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돈화라는 곳이 일본인들이 거점을 두고있는 고장인데다가 공산당 화요파본부가 있던 곳이여서 수색이 심했다. 어지간한 조선사람들은 벌써 5.30폭동직후에 거의다 검거되고 녀자들밖에 없었다. 그런 고장에 가서 발을 붙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나는 어두워진 다음 그 주인의 안내로 교하시내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초막으로 갔다. 이 집 로인부처가 또한 매우 친절한분들이였다.

이날 밤 나는 우리 혁명가들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곳은 인민들밖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였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잠은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만나야 할 사람은 한명도 찾지 못하고 며칠째 줄곧 헛물만 켜고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런 때일수록 피동에 빠지지 말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수세에 빠지면 끝장이다,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이런데 숨어다니기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동만에 나가 혁명을 추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날이 밝은 다음 뜻밖에도 한영애가 그 집에 나타났다. 내가 동만지방으로 나온다는 통보를 받은 한영애는 은신처를 찾아 집을 나설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분이 오면 자기가 숨어있는 곳에 련락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는것이다. 우리로서는 1년만에 만나는셈이였다.

고생끝에 그를 만나고보니 어떻게 반가왔던지 한동안은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한번 웃기 시작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통쾌하게 깔깔거리군 하던 그의 얼굴이 한해사이에 살이 빠져 몰라보게 되였다.

한영애의 말을 들어보면 간도도 살풍경이라고 하였다.

나는 한영애에게 《이렇게 숨어있는거야 무골충이지. 그래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소. 일제놈들이 당장 쳐들어오겠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놈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겠소. 조직들을 빨리 수습하고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하오. 그저 무섭다고 숨어서 떨기만 할수야 없지 않소.》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난다고 하였다.

《아무도 없는 여기에 앉아있어서는 방법이 없소. 조직과의 련계를 지어줄터이니 할빈으로 가기요.》

한영애는 조직과의 련계가 끊어져 어떻게 할바를 모르고 헤덤비고있었는데 마침 잘되였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국제당과의 련계를 짓기 위하여 김혁을 할빈에 파견하였지만 나는 그가 돌아와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내자신이 할빈에 빨리 가서 국제당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폭동으로 여지없이 파괴된 조직들과 계엄상태와도 같이 무시무시한 긴장감에 짓눌린 도시와 농촌마을의 풍경은 나로 하여금 좌경모험주의자들이 혁명에 끼친 해독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통절히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1930년대의 첫출발에서부터 우리 혁명이 불가피하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리라는것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었다.

리론투쟁만으로써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망동을 저지시킬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리치에 맞는 말을 하거나 혁명에 리로운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의사를 아예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5.30폭동의 연장선우에서 우리가 그처럼 우려하던 8.1폭동이 끝끝내 폭발한것은 그들이 길동지구당회의에서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전면적으로 묵살해버렸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만주대지에서 거침없이 굴러가는 좌경모험주의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자면 국제당의 방조가 필요하였다.

나는 폭동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를 알고싶었고 그것이 국제당의 지령에 의한것인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해낸 망동인가를 확인하고싶었다. 만일 국제당이 그런 지령을 내렸다면 론쟁을 해서라도 그 수레바퀴를 멈춰세우고싶었다.

우리는 적들의 경계가 심한 조건에서 둘다 중국사람으로 변장하고 차를 타기로 하였다.

그날 한영애는 진종일 교하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입고 갈 신사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려비를 마련하였다. 군경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하여 트렁크에는 화장품도 넣었다. 그의 도움으로 할빈까지 무사히 갈수 있었다.

나는 할빈부두가의 상부가입구에 있는 국제당련락소에 찾아가 련계를 맺고 그곳 사람들에게 한영애를 소개한 다음 5.30폭동과 8.1폭동으로 하여 동만에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통보하고 카륜회의정형을 소개하였다.

국제당련락소에서도 두차례의 폭동에 대해서는 모험주의라고 평가하였다. 련락소에서 나를 만나준 사람은 자기 견해로 볼 때에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결정들이 다 조선의 실정에 맞고 혁명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고무적인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카륜회의에서 새로운 당창건방침을 내놓고 그 모체로 되는 기층당조직으로 건설동지사를 내온것에 대해서도 그는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국제당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생명으로 되는 자주성의 원칙, 창조성의 원칙, 우리가 내세운 모든 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때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모스크바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류학을 갈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다.

나도 모스크바에 그런 대학이 있는것과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조봉암, 박헌영, 김용범과 같은 사람들도 이 대학을 다니였다. 모스크바류학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당시 만주지방 청년들속에서는 《모스크바류학가》라는 노래까지 불리워지고있었다.

나는 혁명실천에서 떨어지고싶은 생각이 없었기때문에 《가고는 싶어도 지금은 갈 형편이 못된다.》고 대답하였다.

1989년에 문익환목사를 만나 여담으로 할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는 자기 아버지도 그무렵에 할빈에서 국제당이 선발한 류학생들을 쏘련에 넘겨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길동지구 공청책임비서사업을 위임하였다.

김혁이 3층집에서 떨어져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도 우리는 국제당련락소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김혁의 체포때문에 나와 한영애는 할빈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침통한 기분으로 지냈다. 김혁이 철쇄에 묶인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한번은 그가 떨어졌다는 도리의 3층집앞에 가보기까지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력사의 그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행로에는 건군의 4월 25일과 함께 2월 8일도 새겨져있다.

오랜 세월 나라없는 설음속에 갖은 천대와 멸시를 숙명처럼 감수하여야만 했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2월 8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게 된 날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정규군대를 창설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단행할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무력을 직접 건설하시였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참다운 인민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정규군의 면모를 갖춘 조선인민군 열병대오
주체37(1948)년 2월 촬영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 등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들을 꾸려주시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키워내신 혁명투사들을 파견하시여 각 군종, 병종의 모체부대를 꾸리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새 조선의 항공대건설을 위하여, 해군무력건설을 위하여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얼마이며 여러 병종부대들을 조직하고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무장장비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는 또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듯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해방후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규화된 혁명무력이 마련되고 군종, 병종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마침내 해방된 조국땅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인민군대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의 투쟁을 무장으로 확고히 담보하였으며 지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제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였다.

전면전쟁만이 아니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도 인민군대는 련전련승을 안아왔다.

그후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여왔다.

오늘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땅에는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그 과정에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억세게 준비되고있다.

전군에 훈련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강군의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들로 자라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소형화, 정밀화된 핵무기들과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본거지도 타격할수 있는 각종 핵운반수단들을 갖춘 최강의 군대가 있어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굳건히 담보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돌이켜볼수록 1950년대의 미제의 침략전쟁, 19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무모해진 미제의 핵전쟁위협소동 등 장구한 세월 끊임없이 감행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자랑스러운 승리만을 떨치였다.

인민군대의 그 력사와 전통은 바로 력사의 날인 2월 8일과 하나로 잇닿아있기에 천만군민은 이날을 뜻깊에 기념하고있다.

2월 8일은 필승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필승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오시여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은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서 단번성공하였다.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의 보유는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반공화국압살에 매달리던 적대세력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완성에서 이룩한 력사적대업의 실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담력과 배짱,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전략물자로부터 일반소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과 대상에 걸쳐 제재봉쇄의 그물을 조이며 공화국을 고립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한편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을 내몰아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다 못해 지어 유엔무대에서까지 《완전파괴》와 《절멸》폭언을 뇌까리였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은 그 어떤 제재압박책동으로써도 공화국의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공격적으로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기상으로 적들의 모진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불과 한해사이에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성공이라는 승전포성을 울리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이라는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왔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 정, 온넋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자들에게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수 있는 새 형의 로케트개발방향을 제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화성-15》형무기체계를 완성시켜주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군수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9축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연구개발하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여러차례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개발전투장과 발동기분출시험장들에 나가시여 실태를 수시로 직접 료해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성공에로 이끌어주시였다.

마침내 시험발사준비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깊은 밤 로케트기술준비현장에 몸소 나가시여 로동계급이 만든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아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어 발사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대륙간탄도로케트 수직화를 비롯한 발사 전공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태여나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력사적쾌승을 이룩하게 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결판이 났다, 이제는 조선이 완전한 핵강국이다, 워싱톤과 뉴욕에 대한 타격능력을 확고히 보유하였다라고 전하였다.

미군축협회의 정책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정세악화만을 부채질한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단언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제재압살정책이 실패했다는것을 전세계가 알게 되였다.》, 《이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풀 한포기 안남을것이다.》, 《그 어떤 제재도 조선을 변화시키지 못할것이다.》, 《미국이 하루빨리 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한다.》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모신 조선인민이 어떻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는가를.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가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다.

새 사회건설-제반 민주개혁실시

해방된 조국에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실천적요구로 제기되였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고있는 봉건적생산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대중을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하루빨리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었다. 더우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를 위하여 그이께서는 토지개혁의 기본방향을 밝혀주시고 3.7제투쟁과 토지청원운동을 통하여 농민들이 토지개혁의 담당자로서의 자각과 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2월부터 주체35(1946)년 2월까지 기간에 몸소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신 그이께서는 농촌실정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 등을 확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와 함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평양학원 학생들과 1만여명의 선진적인 로동자들로 토지개혁지원대를 무어 농촌에 내보내여 농촌위원회의 사업을 도와주고 지주, 반동들의 파괴음모책동을 폭로분쇄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토지개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10일 대동군 시족면 성문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주집 종살이를 해오던 농민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땅을 분여해주도록 하시였으며 지주집에서 오래동안 머슴으로 고생을 많이 한 농민을 그 지주집에서 살게 하시고 손수 문패까지 써서 달아주시였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은 20일남짓한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지난날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게 되였으며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된 농민들은 알곡증산으로 새 사회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은 로동자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주체35(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여 일본국가와 일본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인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던 모든것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는것을 선포하시였다. 결과 전체 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 034개의 중요산업시설들이 전인민적소유로 되였다.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는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7월 30일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련이어 발포되였으며 교육, 문화, 사법, 검찰분야에서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낡은 제도와 유물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인 시책들이 실시되였다.

하여 북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구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고 혁명적민주기지가 창설되게 되였다.

조국철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로 들끓고있는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조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이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더해주는 원동력인 자력갱생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자력갱생은 자기 힘으로 일떠선다는 뜻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혁명정신과 투쟁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자력갱생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에 기초하고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인민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인민에게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장구한 우리 혁명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요구인 자력갱생을 철저히 구현해온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은 변변한 도구 하나 없는 형편에서 자체로 화약을 제조하고 철과 쇠줄을 구해다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를 족쳤다.

보잘것 없는 경제와 텅빈 국고를 물려받은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파괴된 공장들과 탄광, 광산들을 복구하고 돌렸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자체의 힘으로 지하에 병기공장을 건설하고 무기를 만들어 원쑤들과 싸웠다.

나라의 모든것이 파괴되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파괴된 경제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복구하였을뿐아니라 새로운 공장들도 건설하고 뜨락또르와 자동차, 전기기관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도 많이 만들어냈다.

조국의 자립적인 공업과 강력한 국방력은 그 어떤 대국의 도움으로 마련된것이 아니며 그것은 다 우리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마련된것이다.

이 나날에 조국인민들모두가 심장에 절감한것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조국의 끊임없는 비약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야 할 절대불변의 전진방식으로 된다는 그것이였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비록 달라질수 있지만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혁명적립장에는 그 어떤 사소한 동요나 변화도 있을수 없다.

지금 세계의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조국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특히 미제는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련이어 조작해내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최후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엄연한 세계의 현실과 조성된 난국은 조국인민들에게 자신이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의 길만이 살길이라는 각오와 결심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오늘의 제재돌파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주의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력갱생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자력갱생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강용한 투쟁에 의하여 조국땅우에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공광일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아름다움을 더해줄 《은하수》

생산에 열중한다.

녀성들속에서 《은하수》화장품이 인기를 끌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신년사과업관철로 들끓고있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았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통합생산지령실이였다. 배합, 숙성, 주입, 포장 및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감시, 조종을 하고있던 지령원 한옥주는 여기서 공장의 생산관리체계에 대한 관리와 함께 생산일정, 품질관리도 맡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우리는 생산공정과 환경의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여 GMP의 요구수준에 도달한 작업현장들로 향했다.

기초화장품직장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초순수통이였다.

공정검사원 차금주는 《은하수》화장품이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이 초순수에 있다고, 화장품에서 기본은 이 물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현장을 돌아보니 살결물이나 크림 등 어느것에나 이 초순수가 다 들어갔다. 배합, 숙성 등 여러 공정을 거쳐 흐름선을 따라 포장되여나오는 살결물, 크림들의 흐뭇한 광경을 보며 우리는 분장용화장품직장에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녀성들이 많이 찾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연지와 분크림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분장용화장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특히 흐름선을 타고나오는 공기졸형머리칼고착제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 로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종전에 생산되던 고착제는 사용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이 고착제는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하여 사무원들과 체육인들속에서 그 인기가 높다는 것이였다. 그외에도 겔형고착제, 분무용고착제 등도 생산되고있었다.

호평을 받는 제품들의 일부

우리와 동행하였던 차금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여러차례 견본도 보내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크게 고무된 공장의 종업원들은 세계적인 화장품발전추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식의 화장품분류체계와 시험방법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생산할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세척, 용기 등 여러 화장품직장들과 화장품연구소, 화장품분석소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공장지배인 김현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와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수행에 전체 종업원들이 힘차게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늘처럼 내세우시는 우리 인민들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은하수〉는 언제나 앞장설것입니다.》

우리는 《은하수》와 더불어 더 아름다와질 녀성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품질에서 최고의 제품을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이 있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금강산샘물공장이 있다.

금강산샘물은 금강산생태보존특별지역인 동석동 120m지하암반에서 솟아오르는 샘물로서 물맛이 좋고 여러가지 광물질들이 리상적으로 함유되여있다.

의학연구원 환경위생연구소와 세계에 공인된 물전문가들도 금강산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한 후 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의 에비앙샘물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맛과 질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풍부한 샘물자원과 깨끗한 환경,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는 금강산샘물공장에서 품질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먹는물을 생산하는 특성에 맞게 생산현장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페시키고 위생통과실을 잘 꾸려놓은데 기초하여 자외선살균기와 공기샤와기를 통한 운영을 잘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위생안전성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생산현장의 곳곳에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가 설치되여있어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500ml병정렬기와 병사출설비들의 PLC프로그람체계가 파괴되였을 때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식으로 설비들을 개작하고 PLC프로그람도 새로 개발하였다.

하여 용기인입으로부터 세척, 정밀려과, 주입,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1작업반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물탕크의 물주입과 배출시 그리고 물주입기에서 물탕크의 공기변을 통하여 대기공기와 함께 주변에 있는 먼지알갱이 등이 탕크에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해 물탕크웃부분의 공기나들이구멍들에 각각 공기려과기를 새롭게 설치하여 물의 품질과 위생안정성을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모든 기대들을 알뜰히 다루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생산적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질좋은 샘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열의에 의해 제품들이 흐름선을 타고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다.

지배인 안일룡은 《지금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공장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재를 떠들며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우리는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적들의 발악적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우리는 당면하여 샘물 한병을 생산해도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품질과 위생안정성이 철저히 담보된 제품을 내놓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지금 금강산샘물에 대한 수요는 국내에서뿐아니라 프랑스, 필리핀, 로씨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채향옥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새 품종의 남새들을

남새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식물의 하나이다.

평양시 룡성구역 화성동에 자리잡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남새연구와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몇해전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조국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맛있고 영양가높은 새 품종의 남새들을 안겨줄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에 맞게 연구소에서는 30대, 40대의 과학자들과 온실남새재배경험이 풍부한 재배공들을 망라한 연구집단을 무었다.

과학자들은 생물공학적방법에 의거하여 다수확품종, 우량품종의 온실남새품종들을 새로 육종해내고 퍼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들은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을 새로 육종할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남새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며 남새수확량을 늘일수 있는 재배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연구소의 재배공들도 남새과학자들의 믿음직한 방조자, 실천가가 되여 그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새 품종의 남새시험포전을 맡은 재배공들은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재배기질을 리용하는 문제와 잎따주기, 열매솎음, 순치기 등 모든 영농공정들을 표준화하고 작물의 생육단계에 맞게 영양상태를 보장해주는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남새재배에 정성을 기울이였다.

과학자들과 재배공들의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노력에 의해 여러 품종의 남새들이 빠른 기간에 풍토순화되였다.

그들은 또한 종전보다 생육기일을 훨씬 앞당기면서도 생산량을 1.2배로 높일수 있는 가을배추품종을 연구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당 수백t의 열매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남새재배방법과 사무실이나 가정들에서도 영양액에 의한 남새농사를 실현할수 있는 새 기술도 내놓았다.

연구사 김진혁은 《이번에 우리 조국의 남새품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새로 육종한 남새품종들은 일반남새품종들과 달리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류가 많이 들어있어 약리적가치가 높은 남새들이다.》고 하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남새품종연구와 생산에서 더 높은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줄도마도

《붉은통양배추 4》호

《경채 2》호

소백수골8경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혁명의 성지 소백수골은 그 어느때보아도 절경을 이루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산의 눈보라와 함께 소백수골의 8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전설적위인상을 상징하는 조선의 절경, 민족의 자랑이다.

천하제일 정일봉

소백수골의 뛰여난 절경가운데서 첫째가는것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옹위하듯 우뚝 솟아있는 정일봉이다.
정일봉마루에 올라서면 아득히 펼쳐진 천리수해를 휩쓸며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봉우리의 릉선과 절벽에 부딪쳐 순간에 길들여지는 장쾌하고도 신기한 광경을 볼수 있다.
주체77(1988)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옹위하듯 솟아있는 봉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봉우리이름을 장수봉이라고 지었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김정일**동지가 태여난 곳이라는 의미에서 《정일봉》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정녕 정일봉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길들이시며 세기의 앞길을 환히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이 안겨오는 천하제일봉이다.

설경속의 고향집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집이다.
천고의 밀림속에 자리잡은 2월의 고향집은 설경속에 묻혀 볼수록 신비경을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그날에 자연도 삼가 펼쳐드렸던 그 아름다운 설경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오늘도 펼쳐지고있다.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리며 조선의 새봄을 불러온 설경속의 고향집은 경사로운 2월의 명절과 더불어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잡고있다.

해돋이바위와 룡마바위, 장검바위

기묘하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일봉에 오르면 첫눈에 해돋이바위가 마주보이고 동남쪽의 룡마바위와 장검바위도 안겨온다.
소백수골에 백두산밀영이 창설되던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정일봉에 오르시여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맞은켠 산릉선에 여러가지 형태로 우뚝 솟아있는 바위들을 둘러보시며 백두산의 장수가 룡마를 타고 장검을 휘두르며 적진에 육박하는것 같다고, 우리는 일제와의 싸움에서 그러한 기개를 떨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 절경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길이 전하는 전설들이 새겨져있어 더욱 자랑높은 태양의 성지이다.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

소백수골은 천산만악을 거느린 백두령봉속에 자리잡은 골짜기인것만큼 골도 깊고 산도 웅장할뿐아니라 그 지세 또한 절묘하기 그지없다.
소백수를 따라 올라가느라면 문뜩 골짜기가 막혀버려 막바지에 이른듯 하지만 봉우리들을 에돌아 그냥 가느라면 마침내 전설속의 신비경을 보는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유별한 지세가 나타난다.
정일봉을 중심으로 간백산과 소백산, 해돋이바위와 룡마바위, 장검바위, 곰산, 선오산으로 둘러막힌 소백수골안은 밖에서 보아서는 들어가는 입구를 쉽게 찾을수 없는 천험의 요새이다.

소백수골에 피여난 서리꽃

2월의 소백수골에 들어서면 서리꽃풍경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온갖 꽃들은 좋은 계절을 골라 피지만 소백수골의 서리꽃은 강추위속에서 더 활짝 피여난다.
백두산밀영고향집주변의 신기한 샘(물온도는 4℃)들은 깊은 땅속에서 한겨울에도 솟구쳐나와 소백수에 흘러든다고 한다.
하여 소백수에서는 물안개가 피여오르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찬 대기에 부딪치면서 그 주변은 서리꽃절경을 이룬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우에 행복의 씨앗들을 뿌려가시며 자랑찬 승리만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서리꽃에 다 실려오는듯싶다.
그래서 조국인민은 소백수골의 서리꽃을 더없이 사랑한다.
실로 소백수골에 피여난 서리꽃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인민의 마음속에 피고 또 피는 그리움의 꽃, 그이께서 바라시던 한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불타는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충정의 꽃으로서 소백수골8경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있다.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용용히 흐르는 소백수,
백두산천지에 그 시원을 두고있는 소백수는 땅속으로 흐르다가 신비하게도 소백수골부근에서 솟구쳐 백두산밀영고향집을 감돌아흐르고있다.
사계절 얼지도 마르지도 않고 줄기차게 흘러흐르는 소백수는 항일의 선렬들이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환희를 안아온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백두의 행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신념의 넋을 초석같이 다져주며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흘러들고있다.

2월의 축포야경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정일봉상공에 눈부신 불보라가 펼쳐진다.
항일의 선렬들이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렸던 백두산밀영고향집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와 더불어 소백수골의 설경은 황홀함의 최절정을 이룬다.
태양의 성지에 펼쳐지는 경축의 불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군대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터쳐올린 불보라이며 흰눈덮인 백두밀림에 장쾌하게 울려퍼지는 축포성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불같은 맹세의 메아리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행렬

백두산밀영이 원상대로 훌륭히 꾸려져 개영된 주체76(1987)년 2월부터 어언 30년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정신을 끝없이 정화시키고 혁명적신념을 억세게 벼려주는 태양의 성지를 찾아 충정의 대오가 오늘도 파도쳐흐른다.
그 천만대오의 장엄한 발구름소리 소백수골에 끝없이 울려퍼진다.

*　*　*

진정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소백수골8경은 조선의 절경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만년재보를 간직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태양의 성지를 심장에 안고 조국수호전,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를 떨쳐온것처럼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꽃피울것이다.

본사기자

상 식

력사가 오랜 수도

평양은 세계에서 력사가 오랜 수도들중의 하나이다.
평양은 B.C. 30세기초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나라의 수도로 정하였으므로 5 0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빠리는 6세기초에 수도로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프랑스의 정치적 중심지로 되고있다.
758년부터 건설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1 26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베이징은 춘추전국시기의 연나라때에 수도로 된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1153년 금나라때부터 수도로 되고있다.
모스크바는 1147년경부터 건설된 도시이다.

새 집에서 맞을 설명절

설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그 어디서나 할것없이 설명절준비가 한창이다.

얼마전 우리는 가정들의 설명절계획을 지면에 담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이 보금자리를 편 려명거리의 초고층살림집을 찾았다.

부모방의 새 이불

며칠전 61층 6호 세대주인 한영준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안해 조현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설명절을 맞으며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는데 뭘 준비한다?》

청진시에 살고있는 한영준의 부모는 아들네 집에 여적 와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들이 려명거리에서도 제일 높은 70층짜리 초고층살림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들며느리에게 설명절을 계기로 꼭 가보겠다고 약속하였던것이다.

《늘 비여있던 저 부모방에 시부모님들을 모시게 되였으니 정말 기뻐요. 여보, 언젠가 제가 집아래에 있는 룡흥비단상점에 갔을 때 시부모님의 이불을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해드리려고 봐두었어요.》

《내 보기엔 지금 부모방 침대에 펴있는 이불도 새것이고 또 질도 그만하면 괜찮은것 같은데…》

《아무렴 그 이불이 명주솜을 넣은 비단이불에 비기겠어요?》

다음날 퇴근길에 오른 이들부부는 룡흥비단상점에 들려 새 비단이불을 샀다. 그리고 딸 레영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릴 때 입을 치마저고리도 비단천으로 골라 주문하였다.

설명절준비를 위해 룡흥비단상점을 찾은 한영준가정

민속놀이로 흥을 돋구며

66층 3호 세대주 리영수는 대학적으로 소문난 장기애호가이다.

리영수의 아버지 리승길로인 역시 젊은 시절부터 장기명수로 불리웠다고 한다.

몇달전 리승길로인은 자기 생일날에 세 아들과 식구들이 다 모인 기회에 《설명절을 맞으며 장기경기와 윷놀이를 하겠으니 준비를 착실히 하라.》고 일러두었었다.

그래 설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부터 리승길로인과 아들 리영수는 저녁식사를 물리기 바쁘게 장기판을 펴놓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장기실력이 어슷비슷하니 설명절을 앞두고 진행하는 《훈련경기》들에서도 승부를 가르기가 조련치 않았다.

이날도 부자간의 장기놀이가 시작되자 10살 난 리영수의 딸 진경이도 할아버지의 곁에 꼭 붙어앉아 열성껏 응원하였다.

리영수의 어머니 전현금로인은 며느리 리성숙에게 《남정네들이 경기를 마치면 우리 함께 윷놀이를 하자꾸나.》라고 말하며 흥을 돋구었다.

언제나 장기와 윷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를 다양하게 진행하군 하는 리영수의 가정에서는 장기와 윷놀이로 다가오는 설명절을 즐겁게 보낼것이다.

설명절음식차림표

창광상점 부원 김성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70층 3호의 안주인이다.

그는 휴식일, 명절날이 따로없이 봉사하는 상점에서 일하는 속에서도 설명절을 비롯한 명절날이면 의례히 집으로 찾아오는 남편의 제자들을 위해 음식준비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군 한다.

어느날 밤, 그는 남편 공영수에게 《오늘 제가 이번 설명절 음식차림표를 짜보았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시겠어요?》라고 조용히 말하였다.

《벌써? 어디 한번 보기요.》

설명절음식차림표에는 떡국, 오곡밥, 찡고기완자, 송편, 찰떡, 군만두, 명태식혜, 김치, 깍두기, 약과, 수정과를 비롯하여 민족음식들이 차례로 적혀있었다.

이때 평양콤퓨터기술대학에 다니고있는 딸 주영이가 그들의 곁으로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나는 설명절분위기에 맞게 방안장식을 하겠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있지만 설명절을 맞게 될 새 보금자리의 주인들은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며 밤가는줄 몰랐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로동자가정의 일요일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조국인민들이다.

평양종합인쇄공장 로동자부부인 장수일(39살)과 조경희(33살)가정도 바로 그렇다. 이들은 일요일을 아주 계획적으로 보내고있다.

혹간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매일 부부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마주 대하고있으니 따분한 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고 의문도 가질수 있겠지만 이들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세대주인 장수일은 말이 없고 뚝한 편이지만 매주 일요일계획을 다채롭게 세운다. 그리고 가정의 귀염둥이인 7살 난 장일진의 의견도 아버지의 계획작성에 크게 작용한다. 안해인 조경희는 주별로 다양한 가정식사계획을 여기에 안받침한다.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계획은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변경되는 법이 없이 언제나 집행된다. 지난 주에 보낸 그들부부의 생활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주에 이들은 아들과 함께 중앙동물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론 아들의 의견에 따른것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인 장수일은 중앙동물원 참관을 통해 아들에게 동물세계에 대해 잘 알려주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저녁에는 옆의 아빠트에서 사는 조일훈부부네와 노래경연과 료리경연을 진행하였다. 경연에서는 손풍금도 잘 타고 료리도 잘하는 안해인 조경희에 의해 장수일부부가 앞선것으로 평가되였다.

다음주 이들부부의 계획은 문수물놀이장에 가는것과 함께 조일훈부부네와 다시 경기를 진행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조국에는 어디 가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그쯘히 꾸려져있다. 일요일을 즐겁게 보내고나면 일에서는 더 성수가 나고 사업열의도 높아져 우리 부부는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언제나 기한 전에 완수하고 또 아들의 교육교양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라고 장수일은 말했다.

하기에 공장에서는 이들이 혁신자부부로 널리 알려져있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중앙동물원의 파충관에서

한겨울의 류다른 정서

물놀이는 찌는듯 한 여름철에만 그 진맛을 느끼는것이 아니다. 흰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집처마마다에 고드름이 달리는 한겨울에도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런지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문수물놀이장의 실내물놀이장은 한여름날씨이다.

자연채광으로 하여 맑고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끼는 물놀이장에는 각종 수조들이 있어 어디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할수 있는 어머니 및 어린이수조, 아동수조, 세찬 파도를 일으키는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조선서해의 맛을 그대로 느낄수 있는 바다물수조, 덕수수조 등 별의별 수조에서 사람들의 기쁨이 물보라되여 흩날린다.

나이를 잊게 하는 열림식물미끄럼대와 닫김식물미끄럼대에서도 청춘남녀들의 희열이 넘친 모습과 로인들의 젊음에 넘친 모습들을 볼수 있다.

건강에 좋은 참숯, 황토, 소금, 마노한증방들과 산림욕방, 얼음방, 산소방에서 사람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고있다. 녀성들의 피부가 부드러워지게 하는 마노한증방과 소금한증방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녀성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장현동 70인민반에서 사는 방수련(26살)은 《오늘 돌이 지난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물놀이를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수조들이 배치되여있으니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수 있어 참으로 좋다. 아직 말 못하는 우리 아들 리정위도 이 물놀이장이 좋아서 구명대를 아예 벗을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 단체별로 온 청춘남녀들, 겨울방학을 이곳에서 보내는 아이들, 모두가 이 물놀이장에 한번 왔다가는 또 오고싶어 단골손님이 되는가 싶다.

배구, 롱구, 바드민톤을 할수 있는 경기장들과 벼랑타기시설, 탄력망, 실내체육기재들과 운동기재들이 배치된 실내체육관도 있어 사람들이 물놀이후나 중간에 리용하며 힘을 키우고 체력을 단련할수도 있다.

이외에도 민족음식들과 고급료리들, 청량음료들을 봉사하는 식당들, 수영기재들과 체육기재들을 판매하는 급양 및 봉사시설들이 있다.

저 멀리 라선시 라진지구에서 온 강현숙(50살)도 《텔레비죤에서만 보아오던 이 물놀이장에 와보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이와 취미에 맞게 배치된 각종 수조들, 건강에 좋은 여러 한증방, 거기에 실내체육관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수림속에 들어온것만 같은 체육관의 기둥마다에는 사람들이 상할가봐 두터운 해면도 씌워주었다. 내가 듣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물놀이장의 설계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보아주셨다고 한다. 정말 문수물놀이장이야말로 겨울을 모르는 집, 사계절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의 집이다.》라고 말하였다.

주체102(2013)년 10월 준공후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계절 가림없이 찾아와 문화정서생활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그들이 터치는 진정의 목소리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인간이 건강을 되찾았을 때에 터치는 진정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얼마전 우리는 철도성병원을 취재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목격할수 있었다. 그들은 여러 장기파렬로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인 박광성과 전신 32%에 3도의 화상과 화상성쇠약증으로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던 개천지구의 탄광로동자 강학준이였다.

이곳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소생한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받아안은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아래에 그들의 이야기를 적는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격대원인 제가 뜻밖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채로 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죽은 몸이나 같았습니다. 여러 장기(간장, 비장, 소장 등)의 파렬로 혈압이나 맥박이 거의 알리지 않았고 더우기 시간이 경과되여 파렬된 장기들에서 뿜어나온 피가 온통 배안에 차있었다고 합니다. 하기에 저를 싣고온 사람들은 제가 소생하리라는 기대를 못 가지고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저의 부모들까지도 저의 상태를 보고서는 아들을 잃었다고 단정하였겠습니까. 후에 들은데 의하면 그때 의사들이 저의 상태를 검사하였는데 단 한가닥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 생명지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다 꺼져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아무리 꺼져가는 생명일지라도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꼭 살려낼수 있다는 의지를 안고 협의회를 진행하고 수술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술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살려내기 위한 치료전투를 벌리였습니다. 하여 저는 5일만에 의식을 회복할수 있었으며 두번다시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습니다.

그 나날 저를 위해 바친 복부외과 과장 채성룡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인 량명철을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지성과 함께 저의 몸에 흘러든 수많은 피와 고가약들이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평범한 청년인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선생님들이 고맙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고마운 생각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광성환자가 소생한것을 기뻐하는 복부외과 의료일군들

우리가 안겨사는 품은…

오늘 아침 최광일과장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였다면 동무는 벌써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을것이라고, 동무야말로 이 고마운 제도의 혜택속에서 두번다시 태여났다고 말입니다.

퇴원하면서 진정을 토로하는 강학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보건제도와 그 보건제도를 빛내여나가는 이곳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니였던들 평범한 탄광로동자인 제가 어떻게 오늘처럼 소생의 기쁨을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차례의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며 저에게 힘을 주던 선생님들과 수술후에는 영양관리가 제일이라며 저를 치료하느라 피곤하여 입맛까지 잃었지만 오히려 저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왼심을 쓰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창이 생길세라 밤낮없이 저를 간호해주고 별식은 물론하고 보약제를 마련하여 제 입에 떠넣어주던 간호원들과 귀한 약재들을 저에게 안겨주며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다정히 이야기하던 병원종업원들의 진정어린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친부모도 안겨주지 못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한없이 고마운 내 조국의 품을 보았습니다.

그 품은 정녕 남이 없는 내나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모두가 친형제가 되여 안겨사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 식

건강장수의 명약 솔잎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로씨야등의 민간에서는 솔잎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건강장수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솔잎은 천연약품의 일종으로서 아직까지 그 성분이 채 밝혀지지 않았다.

이미 밝혀진것으로는 엽록소, 탄수화물, 지방질, 카로틴, 비타민 C, 정유, 단백질, 섬유소, 효소, 린, 광물질 등이 있다.

엽록소는 피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성분으로서 몸에 섭취되면 혈색소로 되여 보혈작용뿐아니라 암예방작용도 한다.

섬유소는 장내의 유해물을 흡수, 해독하고 변의 배설을 순조롭게 하는 성분으로서 암 특히 대장암의 예방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

카로틴과 비타민 C는 세포의 로화를 촉진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솔잎정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피줄을 비롯한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피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솔잎은 8가지의 필수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있으므로 좋은 단백질원천으로 된다.

솔잎의 뛰여난 건강효과는 림상경험과 실험을 통하여 계속 증명되고있다.

* * *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2)

선조들이 창조한 그림들을 본데 이어 우리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전시된 14, 15, 16호실들로 향하였다.

호실들을 돌아보기에 앞서 강사는 이렇게 해설해주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일제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문화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화만 놓고보아도 일제는 당시에 있던 미술기관을 강제로 해산하고 화가들의 민족미술창작과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한편 저들의 회화법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중식, 조석진, 리도영을 비롯한 진보적인 화가들은 민족회화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보다 특기할 사실은 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경화, 김영국 등의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해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항일혁명미술이 창작된것입니다. 호실들에는 그 작품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먼저 진보적화가였던 조석진의 그림 《잉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림은 연하고 은근한 색채를 잘 조화시켜 각이하게 움직이는 잉어들의 생태와 세부를 얼마나 질감이 나게 그렸는지 마치 살아움직이는 잉어떼를 보는듯 하였다. 그런가 하면 손가락에 먹을 묻혀 그린 양기훈의 그림 《게》 역시 단순한 소재를 취급하였지만 구도가 째이고 선명하면서도 간결한 조선화화법의 특성을 재치있게 살려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이어 참관자들은 안중식의 그림 《달밤의 기러기》와 김윤보의 그림 《돛배》에 이어 리도영의 4폭형식의 그림 《가을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검푸른 하늘의 달그림자, 마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메마른 갈대, 인적없는 벌판과 소란스럽게 날아드는 기러기떼의 모습을 함축성있는 대담한 붓질로 생동하게 그려낸 이 그림은 당시 조국땅에 서린 비운과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규모가 큰 화면에 붓으로 거침없이 그려낸 김진우의 그림 《대》는 화가의 창작적개성을 엿볼수 있었을뿐아니라 일제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나아가려는 그의 굳센 의지를 느끼게 하였다.

15호실에는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이 시기에는 화조화와 풍경화를 많이 그리였다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란과 참대를 잘 그린 민영익의 그림과 재능있는 녀성화가였던 정찬영의 그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김은호의 그림 《미인도》를 보면 당시 조선녀성의 풍모와 갖춤새를 엿볼수 있었으며 김기창의 그림 《4계절》과 《처녀들》에서는 민족회화의 고유한 미술형식이 구현되고있음을 잘 알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항일혁명미술작품들이 전시된 16호실에 들어섰다. 호실에 들어서니 20대의

조석진의 작품 《잉어》 양기훈의 작품 《게》

김기창의 작품 《처녀들》

안중식의 작품 《달밤의 기러기》

등사그림 《김대장 할머니 병치료에 쓰라고 산삼을 주시다》

조선화 《**김일성**사령관 원쑤격멸에로 부르시다》

조선화 《빨찌산호랑이》

청년장군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기념비적인 구도속에 형상한 조선화 《빨찌산호랑이》가 한눈에 안겨왔다.

항일혁명투사 최경화의 작품을 보며 참관자들은 항일혁명의 간고한 그 시기에 벌써 자기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른 투사의 충정의 세계앞에 그리고 그의 뛰여난 창작적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판화 《김대장 모시고 열린 군민오락회》도 그러하였지만 조선화 《**김일성**사령관 원쑤격멸에로 부르시다》 역시 참관자들의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작품은 1930년대 전반기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를 승리적으로 조직진행하신 빨찌산장군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잘 형상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등사그림 《김대장 할머니 병치료에 쓰라고 산삼을 주시다》, 《대원들의 신발을 기워주시는 김대장》, 펜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 등에서는 인민을 사랑하시고 대원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고매한 덕망과 인덕을 실감있게 펼쳐보이고있었다.

판화 《강도 일제의 만행에 복수를 다지시는 김대장》에서는 간도대토벌로 조선인민을 무참히 살해한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으시고 복수를 다지시는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와 기개를 형상하고있었는데 참관자들은 이 작품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호실의 작품들을 감명깊게 돌아본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보다싶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령도자를 중심에 놓고 수령형상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고 하면서 항일혁명미술작품들은 우리 조국의 문예전통을 빛내이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재보로, 혁명미술발전의 만년초석으로 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강사의 이야기를 새겨안으며 참관자들과 함께 다음 호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뛰여난 **재능**,
훌륭한 **연주**

지난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는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이 진행되였다. 해당 나라 청소년연주가들의 수준을 전문가급에서 평가하는 이 피아노콩클(1부류)에서 조국의 12살 난 소년 최장홍이 특등을 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였다.

콩클 전기간 펼쳐졌던 장홍의 뛰여난 재능과 함께 곡마다에 온넋을 다 바쳐가는 그의 어른스러운 피아노연주모습은 관람자들과 심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하기에 연주가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은 장홍의 연주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에 비겨 축하해주었으며 이번 콩클에서 특등상은 무조건 그의것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하였다.

콩클심사위원장도 그가 음악적개성과 성격을 살려 연주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거듭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심사위원들도 어린 학생이 전문가들도 무색할만큼 최고의 수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의 음악교육수준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사실 그는 이미 유치원시절에 제20차 쇼뺑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에 참가하여 경연력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1등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고 그때 벌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피아노를 위해 태여난 아이, 나이는 어리여도 독특한 연주기법을 소유한 뛰여난 어린이로 평가받았다.

그가 이렇게 피아노신동으로 자라나게 된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라에서는 부모들도 모르고있던 그의 작은 재능의 싹을 찾아주었고 귀중히 여겨 그를 경상유치원에서 배움의 나래를 펴게 하여주었으며 그후에는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에서 음악적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우도록 하여주었다.

하기에 영광의 단상에 오른 최장홍은 기자들앞에서 무료교육의 혜택으로 자기를 키워준 조국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울것이며 보다 뛰여난 재능과 훌륭한 연주로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갈것이라고 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중국 길림성 연길시 해란로 125-1 김호범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그동안 건강하였소.

큰어머님과 제수 그리고 조카들도 모두 잘 있는지.

이렇게 한해두해 해가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멀리 떨어져있는 혈육들의 모습이 정말 그립구만.

여러번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연길시 해란로 118-5라는 집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매번 되돌아오더구만. 국제전화로 집을 찾으니 거기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통화가 안되였소.

혹시 동생에게서 소식이 오겠는가 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통 무소식이더구만. 하긴 그동안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소. 속수무책으로 몇해를 보내다가 얼마전에야 여러 경로를 통해 동생의 달라진 집주소를 알게 되였소.

동생, 몇해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자고보니 큰아버지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구만.

큰아버지네 형제들가운데서 유독 우리 아버지식구들만이 조국의 품에 안기지 않았소. 큰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온 가족을 이끌고 조국에 가길 정말 잘했다고 늘 외우군 했다지. 따뜻한 조국의 품속에서 나는 30여년간이나 만수대창작사에서 촬영가로 일하였고 지금은 년로보장나이가 되여 집에서 안해와 함께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있소.

아버지는 8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눈을 감기전에 나에게 큰아버지와 사촌형제들을 꼭 찾아서로 오고가며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면서 의좋게 지내라고 당부하시였소.

큰아버지에 대한 정이 자별해서인지 자네는 사촌형제라기보다 꼭 내 친동생 같은 생각이 드는구만.

생각이 나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국땅 남양에서 만났을 때 자넨 앞가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모시고있었지.

그때 자네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댔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무한한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수령님의 령도를 받으며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고있는 형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조국산천을 발이 닳도록 돌아보고싶다고 했지.

동생나이도 이제는 60살이 다 되였겠는데 더 늙기 전에 조국에 다시 나와보라구.

조국은 정말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달라지고있소.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우리 조국의 발전모습을 동생의 눈으로 직접 보라구. 그러면 지금 서방언론이 얼마나 우리 공화국에 대해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을거네.

동생, 조국에 올 때 꼭 제수랑 조카랑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오라구.

우리 함께 릉라인민유원지며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구.

동생, 이젠 우리 집주소도 알았으니 자주 편지하오. 편지를 보낼 때 문태경, 신동활형님과 문명숙, 문정자, 김철을 비롯한 형제들의 소식도 적어보내주오.

할 말은 많고많지만 이 편지에 다 담을수는 없구 해서 오늘은 이만 쓰려고 하오.

동생, 그럼 잘 있소.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2동 8인민반
2층 3호 김장춘 보냄

웃음넘치는 선경마을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중국 길림성에서 살고있는 리철호동포의 고향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에로 이어졌다.

리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야-》 하는 감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드넓은 양어장과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규격화된 포전들, 즐비하게 늘어선 멋진 살림집들, 훌륭하게 일떠선 문화후생시설들, 아담한 범안발전소…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범안리의 선경은 우리의 눈길을 꽉 잡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과연 온 나라에 사회주의선경으로 소문난 고장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갈마들었다.

우리는 이곳의 주인들을 만나보고싶은 마음속 충동을 안고 리소재지로 향하였다.

마을입구에서 우리와 만난 리의 일군인 옥기범은 지난해에만도 수백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개건되거나 새로 일떠서 리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돌아보았다. 조선식기와를 얹은 집들에는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십평의 터밭과 창고까지 있어 농장원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여있었다.

《정광명》이라고 문패를 건 집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침 농장에서 제1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집주인인 정광명을 만날수 있었다.

집구경을 왔다는 우리의 말에 정광명은 반겨맞아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집이 정말 좋습니다. 집식구는 4명인데 살림방이 3칸이나 되고 널직한 부엌과 세면장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기화가 실현되여 전기로 밥을 짓고 난방도 보장하고있습니다.》

새 집에서 전기덕을 톡톡히 보고있는 기쁨과 자랑이 넘친 그의 목소리를 뒤에 남기고 우리는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인 범안원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방금 미용을 하고 아름다와진 자기의 모습을 새삼스레 거울에 비추어보고있는 청년분조장 리은정을 만났다. 그는 오늘 하루일을 앞당겨 끝내고 이렇게 분조계획에 따라 모두가 범안원에서 미용과 리발을 하고 수영도 하고있다며 범안원이 새로 일떠서니 제일 좋아하는것이 아마 우리 청년들인듯싶다고 말하였다.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 수영장 등을 차례로 돌아본 우리는 2층에도 올라가보았다. 넓다란 홀에서는 제2작업반장과 제5작업반장사이의 탁구경기가 한창이였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두 작업반은 지난해 농사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탁구경기에로 이어지고있다는 것이였다. 두 반장의 탁구기술도 높았지만 경기에서 기어이 이기려는 승벽심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응원으로 한껏 달아오른 작업반원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은 우리는 양어장에도 들려보았다. 부지면적이 수십정보나 된다는 양어장의 못들에서는 철갑상어, 칠색송어, 백련어, 화련어, 잉어 등이 한가로이 꼬리를 휘젓고있었다.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리와 군내는 물론 시에도 보내주고있다는 양어관리공 최신정의 얼굴에는 말은 일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생활이 그대로 웃음과 기쁨으로 되고있는 자기들의 행복을 그대로 담은 노래소리가 울리는 문화회관과 고향마을의 밝은 불빛을 지켜가는 범안발전소며 농장10일유치원, 탁아소, 과학기술보급실, 태양열남새온실, 야외버섯재배장 등 그 어느곳에서나 보람찬 창조적로동으로 행복을 마련하고 가꾸어가며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범안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정말이지 희한하고 아름다운 선경마을에 넘치는 이채로운 모습들이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될 범안리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정광명의 가정

서흥군 범안고급중학교에서

범안양어장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과 범안원

변함없는 한본새로

평안북도 운산군인민병원 치료예방과 과장 한철은 하루일과의 첫시작을 과들을 돌아보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과정에 그는 의사, 간호원들의 옷차림상태와 의료기구상태 등을 료해하고 바로잡아주군 한다. 이와 함께 과들의 정돈상태는 물론 입원환자들의 호실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점들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의료일군들이 환자치료에 정성을 쏟아붓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 그에게는 아래단위 리인민병원과 진료소의 의사들이 호담당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잘해가도록 조직하고 지도하며 또 장악과 총화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주목되는 점은 그렇게 바쁜 그였지만 체육과 군중문화사업, 건설 등에서도 막히는것이 없어 그런 사업도 책임지고 진행하는 팔방미인이라는것이다.

그런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치료사업 특히 병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사업에 선차적힘을 돌리는것이다.

한철

하기에 우리는 그를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돌봐주고오는 저녁시간에야 만날수 있었다. 하지만 바삐 병원에서 진척하고있는 입원실호동건설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였다. 알고보니 그는 이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내밀고있었다.

그는 중국 내몽골자치구 포두시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사람이였다. 사실 그는 체육인이 되려고 하였지만 의료일군이 되였다고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체험을 통해 받아안은데 있었다.

그는 소학교시절에 자기도 모르고있던 병을 진료소담당선생이 조기에 발견하고 군인민병원에 입원시켜 군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적극적인 치료와 지극한 정성에 의해 병을 고쳤던것이다. 어린 그였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바쳐가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는 보다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뜨겁게 체험할수 있었다. 그 세계에 감복되여 그는 기어코 의사가 되였다.

의료설비의 현대화계획을 토론한다. (가운데)

의사가 된 때로부터 그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였으며 수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소생시켰다.

치료예방과 과장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실력은 보다 높이 발휘되였다. 평범한 의사였던 자기를 내세워주는 집단의 믿음에 보답해가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자기의 실무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무엇이든 막히는것이 없도록 자기를 채찍질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그가 집단의 사랑을 받는것도 자기 사업을 단순히 행정실무적인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가 앞채를 메고 대중의 모범이 되였기때문이다.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언제인가 병원에서 군안의 산골마을주민들에 대한 현장의료봉사를 진행할 때였다. 그때 병원일군들은 매번 그곳에 나가군 하는 그여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한 그여서 빼놓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잘 아는 자기가 빠질수 없다며 그 길에 나섰다. 그때 그들이 가야 할 높고낮은 령길은 갓 내린 비로 길이 질어져 차가 오를념을 못하고있는 상태였다. 그는 차가 미끄러지면 그대로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차를 밀기도 하며 목적지로 향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주민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이렇게 흘러간 수십여년의 나날 그는 변함없는 한본새로 인간의 생명을 위한 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여나가는 길에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 식

발해의 금속공예 금관장식품

발해는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공예부문에서도 매우 발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금속공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옛 발해령역에서 발굴된 금관장식품은 그 제작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조형예술적으로 우수한것으로 주목되는 금속공예유물로 알려져있다.

이 금관장식품은 발해의 두번째 수도였던 곳의 주변에 있는 무덤떼에서 발굴되였다.

높이 16.8cm, 두 날개사이의 너비 20.7cm인 금관장식품은 비교적 두터운 금판대기로 새날개모양의 세움장식을 하고 그사이에 새깃모양의 중간장식을 한것인데 보기만 해도 경쾌하다. 세 부분에 작은 구슬알무늬를 정교하게 부각하고 가운데깃에는 구름송이와 꽃무늬를 새겨넣은 금관장식품은 정면과 측면에서 보면 마치도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예는 수리개와도 같다.

이처럼 발해의 금속공예품들은 조선민족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고있다.

* * *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다시 찾은 민족적뿌리

한 동포청년의 류다른 체험담이 있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홍황인동포,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동포사회와 동떨어져 생활을 하였었다. 그러던 그에게 자신의 민족적뿌리를 생각하게 하고 인생길을 개변시켜준 계기가 있었다.

10여년전 그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우연히 류학동출신의 한 동포청년을 알게 되였다. 일본사람들뿐인 회사에서 버젓이 조선사람이름을 가지고 자그마한 위축감도 없이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에 대한 지지여론을 높이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열심히 벌리는 그 청년의 모습은 홍황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날 용기를 내여 그에게 자기도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고백하였다. 이역땅에서 한피줄의 정은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둘은 곧 딱친구로 되였다. 며칠후 홍황인은 그 청년의 손에 이끌리여 류학동에서 조직한 한 모임에 참가하였다.

홍황인동무라고 정겹게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는 청년들,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흥겨운 노래춤을 펼쳐놓는 처녀들에게서 그는 따뜻한 동포애와 민족의 향취를 느끼게 되였다. 그날 그는 지금껏 자신을 얽어매고있던 속박의 사슬이 풀려져나감을 깨달았다. 지금껏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멀리하며 살아왔지만 동포애의 정이 흘러넘치는 이런 따뜻한 대가정속에 파묻히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허무하게 보낸 지난날을 자책하면서 잃을번 했던 뿌리를 다시 찾을것을 결심한 그는 류학동조직에 몸을 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에 나서게 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은 애국의 대오에 갓 들어선 그에게 크나큰 힘과 고무로 되였다.

동포사회의 품으로 돌아온 그는 뜻밖의 행운을 받아안았다. 조국에서 보내준 사랑의 장학금을 받아안게 된것이였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든 어버이사랑의 력사를 알게 된 그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며 그는 대학을 마치게 되였다. 졸업후 그는 결심하였다.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과 총련조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자.)

이렇게 되여 그는 류학동 전임일군이 되였다.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준 조국과 총련조직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는 지난날의 자기처럼 일본사회에 파묻혀 살아가는 동포청년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여 애국의 대오에 세워주는 사업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국방문의 나날

지난해 4월 오사까지역의 동포들은 비교적 큰 규모의 조국방문단을 뭇고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을 찾았다. 대다수가 총련과 단일단체들의 초급일군들이였다. 당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이 발악적으로 진행되던 때였다.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고 그로 하여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땅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그 모든것은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조국땅은 여전히 활기에 넘쳐있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불패의 위력을 떨쳐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비약의 나래를 펴고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조국의 벅찬 숨결은 그들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방문단성원들의 가슴가슴은 애국의 열기로 세차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조국을 받들어 애국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가 모두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어졌다.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애국의 키가 자라던 못 잊을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께서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련애국위업의 새 전성기를 기어이 펼쳐놓을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불멸의 꽃에 매혹되여

이렇게 온갖 꽃들이 만발한 따뜻한 봄계절에 고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나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처음으로 고국땅을 밟고보니 인상깊은 곳이 많지만 그가운데서도 중앙식물원에 갔을 때가 제일 감동깊다.

나는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나는 일본의 원예가 가모 모도데루가 20여년간 온갖 심혈과 정력을 다해 큰꽃알뿌리베고니아로 새 품종의 꽃을 육종해내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베고니아과의 수많은 꽃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우며 열정을 상징하듯 눈부시게 밝은 붉은색을 띠는 이 꽃에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분의 존함을 모시려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과 시대의 지향을 모두 담았다.

지난 기간 **김정일**화는 여러 국제화초전시회들에 출품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참관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진정 온 세계가 그토록 공인하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가슴에 뜨겁게 넘쳐난다.

나는 평양에서 해마다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였는데 앞으로 나도 불멸의 꽃을 정히 피워 안고 고국에 다시 오겠다.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박 류드밀라

주체106(2017)년 4월

눈시울이 젖어든다

지난해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은 칠보산에 대한 관광을 하였다.

일명 함북금강으로 불리워지고있는 칠보산은 조국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들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칠보산관광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전용비행기를 타고 어랑비행장에 내린 우리는 그곳에서 뻐스로 칠보산에 다달았다.

우리는 내칠보와 외칠보에서 선녀들이 하늘로 올랐다는 승선대며 가지가지의 옛 전설이 깃든 례문암, 가마바위, 덕골폭포, 만물상,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암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들을 기쁨속에 보았으며 해칠보의 기묘한 절벽과 섬바위들도 환희속에 보았다.

눈물은 내리고 감동은 오른다는 말이 있다.

칠보산의 가는 곳마다에서 나는 이름할수 없는 감동을 느꼈고 그럴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운 조국의 사랑에 뭉클 젖어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기간 나는 사업상관계로 조국에 자주 와보고 또 명승지들도 많이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칠보산관광길에 올라보기는 난생처음이다.

나는 이번 칠보산관광을 통하여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느끼며 애국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애국의 뜻을 심어주고 앞으로도 통일애국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싶다.

나는 칠보산관광의 나날에 받은 감동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일을 더 많이 해나갈 결심을 다진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김영옥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는 조국에 올 때마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자부심을 한껏 느끼군 한다.

만일 조국을 선조의 뼈가 묻힌 땅이라는 지역적인 뜻으로만 리해한다면 《조국》이라는 이 한마디 부름앞에서 내 가슴이 이렇듯 숭엄하고 뜨거워지지 않을것이다.

오늘 조국은 경제와 국방,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일 창조해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서방언론들이 조국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지만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우리 동포들은 텔레비죤이나 신문, 통신, 방송들에서 조국소식이 나올 때면 거기에 눈과 귀를 맞춘다. 조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에게도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 땅우에 인민이 리상하고 념원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제힘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고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을 내놓고 또 있는가.

나는 그것을 조국방문의 나날들에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으며 인민들이 흔히 쓰고있는 《자력갱생》, 《자강력》과 같은 이 길지 않은 말속에서 그 모든 기적과 승리의 비결을 알수 있었다.

려명거리건설장과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그렇다. 우리 조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자기의 궤도를 따라 한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세인을 놀래우는 높은 속도로 눈부시게 비약해나갈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있기때문이다.

조국은 지난 세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국방건설에 큰 힘을 돌려왔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진로선을 받들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울려퍼지고있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그 어떤 핵폭탄의 뢰성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승리의 우렁찬 합성과도 같다.

우리 해외동포들속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권리와 리익을 지켜주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신뢰심이 날을 따라 더욱 뜨겁게 높아가고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핵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해외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의 역할이 자못 중요하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주는 진정한 조국을 위하여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온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리지 못한다.

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위업을 말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군 한다.

나는 앞으로 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조국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해외공민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류창환

고려의 무용

조선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무용은 앞선 시기에 비하여 민족성이 더욱 강화되고 무용종류와 형식이 보다 다채롭게 발전한것으로 하여 민족무용발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국토를 하나로 통일한 고려는 정치, 군사적위력과 발전된 경제, 문화로 하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뿐아니라 민족예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인민들은 통일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혈연적 및 문화적공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예술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였다.

우선 근로인민들의 창조적인 생활속에서 다양한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민속무용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고려인민들은 《동동》을 비롯하여 고구려때부터 전해오던 민속가무들을 즐겨 진행하였으며 그 노래와 춤가락들에 외적을 물리치고 고향을 지켜낸 기쁨과 희열의 감정을 담았다.

고려인민들은 흥겨운 춤판들에서 다양한 주제의 민속무용들도 널리 추었는데 《통덕진출진무》, 《조천무》와 같이 반침략투쟁을 내용으로 한 춤들을 많이 추었다. 고구려의 애국전통을 이어받은 고려인민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터에서 한몸바쳐싸우는것을 성스러운것으로 여기면서 외적이 기여들면 누구나 한사람같이 싸움터로 달려나가 용감하게 싸웠으며 여러차례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부터 고려시기 칼, 창, 활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외적을 물리치는 전투과정을 형상한 힘있고 박력있는 민속무용들이 많이 추어졌다.

《동동》, 《무고》와 같은 작품들이 연원이 오랜 민속무용이였던것을 보면 고려인민들의 로동과 정서생활속에서 다양한 주제의 춤들이 추어졌으리라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고려인민들의 정서적미감이 높아가는데 따라 민간예술인들의 공연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들에 의하여 민속탈춤이 발전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민간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앞선 시기와 비할수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민간예술인들은 주로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면서 국가적인 행사인 팔관회, 연등회를 계기로 예술공연들에 출연하군 하였는데 그들이 공연무대에 올린 대부분의 종목들은 탈춤이였다. 민속탈춤들은 그 형상에 따라 인간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인물탈춤과 동물탈춤, 상상동물탈춤, 귀신탈춤 등 여러가지였는데 리색이 쓴 《목은집》에는 민간예술인들의 다양한 탈춤종목들이 기록되여있다. 주요탈춤종목들로는 《처용무》, 《호인탈춤》, 《룡탈춤》, 《봉황탈춤》, 《사자탈춤》 등을 들수 있다.

당시 민간예술인들이 다양한 탈춤들을 공연무대에 올렸기때문에 《고려사》에서는 《우리 나라 말로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자를 광대라고 한다.》고 하였다.

고려시기에는 궁중무용도 발전하였다.

고려 초기부터 궁중에서는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고려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악부제도를 완비하고 전통적인 민족음악과 무용인 속악을 위주로 궁중악을 발전시켰다. 《고려사》 악지에서 《고려때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악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악보도 편찬하였다.》라고 한것은 고려궁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과 무용을 포섭하여 통일적으로 계승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고려사》 악지에 고구려의 《동동》, 백제의 음악인 《정읍》에 맞추어 추는 《무고》, 신라의 《무애무》와 같은 춤들이 기록되여있는것을 보면 이 시기에 앞선 시기의 전통적인 무용형식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갔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의 대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1세기에는 당악이, 12세기에는 아악이 류입되였으며 궁중무용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 과정에 궁중에서는 당악무용들도 추어졌다.

이와 같이 고려시기에 이르러 근로대중의 생활속에서 다양한 민속무용들이 널리 창조되고 전국각지에 보급되면서 민속무용들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힘과 기백이 넘치는 민족적인 색채의 춤가락들에 고려인민들의 생활과 미학적정서가 반영되고 그에 토대하여 궁중무용도 발전하였다.

민족적색채가 짙고 춤형상수법들이 다양한 고려의 무용들은 우리 민족무용예술사의 한페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사회과학원 박사 김선영

《꿈에 본 동산》과 안견

동양화의 한 종류인 산수화는 세나라시기부터 창작되였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산수화화폭들에는 산좋고 물맑은 조국의 자연의 아름다운 면모가 잘 묘사되고 당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도 반영되였다.

그러나 지난날에 창작된 산수화들은 거의나 순수한 자연을 묘사하는데 치우쳤으며 사람들의 생활을 일부 반영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문인량반들의 현실도피적인 사상감정을 반영한데 머물렀다.

하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 안견의 《꿈에 본 동산》, 정선의 《너럭바위》를 비롯한 작품들은 이름난 산수화작품들로 전해내려오고있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왕자였던 리용이 꿈에 보았다는 복숭아동산의 경치를 상상하여 그린 풍경화인 《꿈에 본 동산》은 풍부한 상상력과 개성적인 구성으로 넓고 웅대하며 아름답고 정숙한 자연의 정서와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조선민족의 생활감정을 잘 반영하였다.

자는 가도, 호는 현동자인 안견(1418년-?)은 15세기 중엽 조국의 대표적인 화가의 한 사람이다.

산수화를 특히 잘 그린 그는 인물화, 동물화, 사군자도 그렸다.

안견은 내외의 이름난 명화들을 많이 보고 연구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 회화예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여러 화가들의 화법에서 좋은 점들을 배우면서 자기의 고유한 화풍을 세웠다.

자연의 풍치를 실감있게 보여주는데 주의가 돌려진 그의 작품들은 당시 화가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으며 조국의 회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안견은 그림에 대한 평도 많이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청산백운도》, 《꿈에 본 동산》(《몽유도원도》), 《적벽도》, 《룡》, 《어부》 등이 알려져있다. 그가운데서 《꿈에 본 동산》은 안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해오고있다.

그의 작품들에는 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표현력과 힘있고 아름다운 필치, 풍만한 정서가 잘 나타나있는것이 특징이다.

* * *

안견의 작품 《꿈에 본 동산》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3)

- 양화사 -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평안북도 태천군 상단리에 있는 양화사도 있습니다.

양화사(일명 보국사)는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서 묘향산 보현사 다음가는 큰 절입니다.

양화사사적기에 의하면 양화사는 872년에 세운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이곳은 발해땅이였습니다. 지금 양화사에는 해탈문, 천왕문, 대웅전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좌우로 명부전, 심검당, 봉축전, 봉향각 등 10여채의 건물들이 자리잡고있으며 이밖에 련못이 있습니다.

현존 건물들가운데서 천왕문, 명부전, 해탈문은 조선봉건왕조 전반기의것들이며 대웅전을 비롯한 그밖의 건물들은 1874년에 불타버린 후 다시 지은것들입니다.

양화사의 중심건물은 대웅전입니다. 1461년에 다시 지으면서 본래 보광전으로 불리우던것을 대웅전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1879년에 다시 지은 대웅전은 높은 축대우에 기단을 쌓고 세운 정면 3간(11.8m), 측면 2간(6.6m)의 겹처마합각집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마루를 깔고 우에는 소란반자와 빗반자를 댔습니다. 안쪽깊이에는 불단을 놓고 부처를 안치하였습니다.

대웅전과 함께 1879년에 다시 지은 봉축전도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건축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화사에서 제일 오랜 건축양식을 보여주고있는 천왕문(1656년 개건)은 정면 3간(7m), 측면 2간(5.1m)의 겹처마합각집으로서 안팎 5포의 포식건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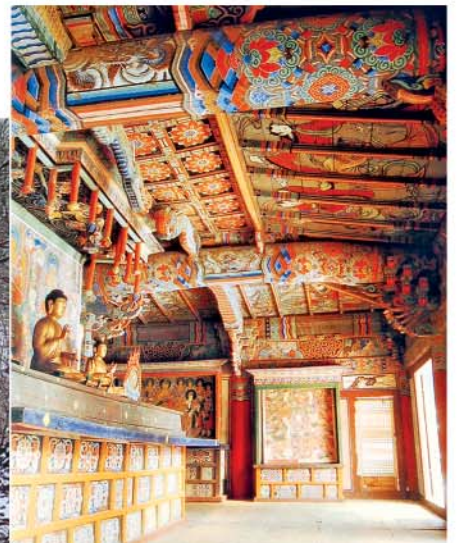
명부전은 정면 5간(11.22m), 측면 2간(5.15m)인 겹처마합각집으로서 기둥은 배부른기둥이며 두공은 바깥 5포, 안 9포입니다. 정면 가운데간은 두짝문, 가녁간들은 외짝문으로 처리하였는데 가운데간문은 화려한 꽃살문입니다. 명부전의 벽체구조는 오랜 건축양식을 보여주고있으나 두공은 해탈문의 두공과 같은것으로서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중수하면서 변화된것입니다.

해탈문은 정면 5.76m, 측면 3.9m로서 두공이 바깥 5포, 안 7포로 되여있으며 내부기둥이 없이 천정을 구성하였습니다.

1879년에 다시 지은 봉축전은 정면 4간, 측면 2간의 합각집으로서 정면과 측면은 겹처마이고 후면은 홑처마로 되여있습니다.

양화사에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길이 30m, 너비 15m의 련못이 있으며 대웅전앞에 탑터가 있습니다.

양화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절의 하나로서 오늘 조국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춘민

양화사 대웅전의 외부와 내부

《비단옷을 입어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민족의 향기》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잠시 자기가 입은 옷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비단옷을 입었습니까?》

저고리며 치마, 바지, 목에 두른 수건, 양말, 속옷 등 조선비단으로 만든 제품을 늘 애용하는분들은 비단옷이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였을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싶이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도 비단을 생산하고있지만 조선비단은 그 질이 비할바없이 뛰여나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비단에 대한 더 깊은 리해를 하기 위해 룡흥비단상점을 찾았습니다.

룡흥비단상점은 려명거리에 세워진 종합상업구 4층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상점책임자 김송이는 상점이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국내손님들뿐만아니라 로씨야, 중국, 미국, 영국, 인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해외동포들이 여러가지 비단제품들을 적지 않게 봉사받았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는 《천연섬유인 비단은 인체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하기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비단옷은 장수옷〉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단은 보기에도 아름다울뿐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침구류, 속옷류를 만드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비단천으로 만든 속옷은 얇고 가볍기때문에 겹쳐입어도 부피가 커지지 않고 또 매끈매끈하므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비단은 다른 어떤 섬유보다도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있어 열을 쉽게 전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있는데 항상 비단옷을 입으면 여름에는 더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시원하고 겨울에는 자기의 몸온도를 보존하여주므로 따스합니다.

비단옷을 입고있는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안의 독이 피부를 통하여 몸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때문에 랭병, 허리병, 위장병, 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늘 비단옷을 입고있으면 병치료에 도움이 될뿐아니라 피부도 놀랄정도로 아름다와집니다.

비단옷이 어떻게 되여 사람들의 건강에 신묘한 작용을 하는지 그에 대해 알고있는분은 아마 많지 못할것입니다.

비단천은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로 짜는데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누에란 고치실을 얻기 위하여 치는 벌레들을 통털어 부르는 말인데 뽕누에, 가둑누에, 피마주누에 등 20여가지가 있는데 명주실을 뽑는데서 생산적의의가 큰것은 뽕누에입니다.

뽕누에고치 한알에서 뽑은 실은 가둑누에나 피마주누에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가늘며 실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명주실은 고치고르기, 고치삶기, 실켜기, 다시감기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합니다.

비단은 짜는 방식에 따라 천의 기술적특성이 달라져 은초사, 갑사, 항라, 약산단, 뉴똥, 양단, 공단, 죠세트, 크레프 등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비단옷을 빨 때에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비누나 몸샴푸로 거품을 내여 세탁물을 담그고 손으로 슬렁슬렁 비벼야 합니다. 깨끗이 빤 옷은 대충 털어서 옷걸개에 걸어 말리웁니다. 옷이 마르면 덧천을 펴고 낮은 온도에서 다려야 합니다.

그럼 동포여러분, 건강에 좋은 비단옷을 즐겨입기를 바랍니다.

려명거리의 룡흥비단상점은 언제나 동포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비단옷을 아낌없이 봉사해드릴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비단천으로 만든 의복류들과 침구류들의 일부

유모아

티끌모아 큰 산

선생님: 《여러분! 티끌모아 큰 산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학생: 《티끌이 큰 산같이 많이 모이면 청소를 해야 하니까 매우 귀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

조국의 천연기념물 (13)

평원훈련정은행나무

우리 조국의 북서지방의 남부에 자리잡고있는 평안남도에도 천연기념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원훈련정은행나무, 북창느삼나무군락, 성천가지주먹풀군락, 대흥수달, 성천습곡을 들수 있습니다.

평원훈련정은행나무는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읍에 있습니다. 해묵은 나무로서 학술적으로, 력사유적주변의 풍치미관상으로 의의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되고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훈련정을 짓고 풍치조성을 위하여 대칭으로 심었습니다. 훈련정을 마주하여 오른쪽의 나무는 죽은지 오래되여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왼쪽의 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평원훈련정은행나무입니다. 나무는 700여년 자란 수나무로서 높이가 25m, 밑둥둘레가 8.6m이고 가슴높이둘레가 6m이며 나무갓직경은 남북 29m, 동서 40m입니다.

북창느삼나무군락은 평안남도 북창군 남양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세계적으로 1속 1종인 조선특산식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할뿐아니라 꽃이 아름다와 원림관상적가치가 있으므로 잘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높이는 30~50㎝이며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껍질은 검은 밤색이고 잎은 15~25개의 쪽잎으로 된 깃모양의 겹잎이며 어긋나게 붙어있습니다. 쪽잎은 길둥근모양이며 잎변두리는 매끈합니다. 잎의 웃면은 진한 풀색이고 뒤면에는 비단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받침잎은 가시모양을 하고있으며 4~5월에 햇가지끝에서 노란색의 나비모양의 꽃이 여러개 모여 핍니다. 열매는 꼬투리열매이며 8월에 익습니다. 한 꼬투리에는 2~3개의 씨앗이 들어있으며 씨앗과 씨앗사이는 잘룩한것이 특징입니다. 나무는 씨 또는 포기가름으로 번식시킵니다.

성천가지주먹풀군락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읍에 있습니다.

이 성천가지주먹풀군락은 분포상북쪽한계선에서 자라므로 학술연구에 의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주먹풀은 우리 나라 중부지대이남산지의 바위우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성천가지주먹풀군락은 자연적으로 무리를 지어 자라며 얼핏 보면 높은 산에서 자라는 어린 누운측백나무와 비슷하며 사철 푸른것이 특징입니다. 줄기는 곧고 우로 올라가면서 가지를 치고 다시 갈라져 겹잎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대흥수달은 평안남도 대흥군 대동리의 대동강가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대흥읍에서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4㎞ 떨어진 곳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반물살이를 하는 유일한 짐승으로서 특수한 생활양식을 가지고있고 학술적의의가 크므로 적극 보호되고있습니다.

성천가지주먹풀군락

대흥수달

이 지역에는 수달의 좋은 살이터인 대동강상류의 여러 지류들이 있고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들이 섞인 숲으로 덮인 해발높이 500~1 000m의 산지가 있으며 소나무, 잣나무 등 나무들이 울창한 강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강들에는 산천어, 뚝중개, 버들치 등 여러종의 물고기들과 물살이무척추동물들이 많으며 땅에는 등줄쥐를 비롯한 여러종의 들쥐와 두더지 등과 늘메기, 긴꼬리도마뱀, 개구리, 도롱룡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또한 이 지대에는 뱀눈나비, 물쥐새, 원앙새, 큰유리새 등이 삽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살이터조건이 좋으며 먹이를 쉽게 얻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성천습곡은 평안남도 성천군 은곡로동자구에 있습니다. 이 습곡은 우리 나라 습곡구조들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것으로서 습곡구조의 모양과 특성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되고있습니다. 이 습곡은 은곡광산을 개발할 때부터 알려진것으로서 주위의 지질은 상부원생대 상원계 직현통의 규암, 편암, 석회암, 석영반암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습곡축은 주로 북동-남서방향으로 놓여있으며 습곡은 여러겹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습곡은 절벽의 동쪽 50m구간에서 나타납니다. 자름면의 높이는 4~5m입니다. 이 자름면에서 습곡모양은 사이사이에 끼워있는 탄산염암석들로 하여 더욱 선명하게 알립니다. 규암층의 습곡구조는 이 지역은 물론 여러 지역의 퇴적변화와 바위들의 습곡구조의 토양을 연구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야 화

김취려장군과 탁기봉

묘향산 약수터에서 향산천 건너편을 바라보면 마치도 펄럭이는 기발대렬모양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탁기봉이다.

탁기봉에는 외적을 쳐물리친 전설이 깃들어있다.

13세기초 수많은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다. 적들은 평안북도일대에까지 기여들어 못된짓을 일삼았다. 당시 후군병마사로 임명되였던 김취려장군은 평안북도 녕변군일대에서 적을 격파하였으며 묘향산에 쫓겨 들어간 침략자들을 추격하여 2 4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계속하여 여러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하였다.

장대한 키에 가슴밑까지 수염을 드리우고있는 김취려장군의 그 위엄은 적들이 넋을 잃게 하였다.

싸움은 고려군의 승리로 끝났다.

싸움에서 이긴 김취려장군은 백마를 타고 승전고를 울리며 대오를 이끌고 묘향산골안으로 들어왔다.

길 좌우에 늘어선 군중들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김취려장군과 고려군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성대한 승리의 축하연이 있은 날 밤 김취려장군은 흡족한 마음을 안고 깊은 꿈나라속에 잠겨들었다.

꿈결에 은은한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키가 장대한 로인이 나타나 고려군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묘향산의 산줄기를 거느리는 산신인데 고려군의 승리를 묘향산의 산발에 영원히 새겨두려 한다고 말하였다. 김취려장군이 이에 찬성하자 로인은 흡족하여 웃더니 이밤으로 향산천의 남쪽기슭에 새겨놓을터이니 아침 일찌기 일어나 보라고 말하고는 안개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맑은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아침시간을 알리는 보현사의 종소리가 울렸다.

김취려장군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향산천 건너편의 산발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칼날처럼 일직선으로 뻗어있던 산줄기가 마치도 장군기를 앞세운 기발대렬처럼 기복을 이룬 봉우리로 변하였다.

사람들은 묘향산의 산발도 고려군의 감격적인 개선장면을 영원한 자랑으로 새겨두었다고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였다.

탁기봉은 이때부터 생겼다고 한다.

김취려장군의 공적은 탁기봉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 * *

위장산 바위장군

임진조국전쟁때 있은 일이였다.

왜적들은 남해바다가마을에 기여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에 불지르며 재물을 빼앗아내였다.

왜적들의 만행을 두고 분노에 치를 떠는 사람이 있었다.

이 고장에서 바위장군이라 불리우는 신규년이였다.

어느날 밤 신규년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오래동안 의논하였다.

날이 밝자 그의 집앞에는 난데없는 군사 200여명이 모여들었다. 어제까지 농쟁기를 들었던 손에 무기를 벼려들고 사방에서 달려온 의병들이였다.

군사들의 의견에 따라 의병장이 된 신규년은 말에 올라 첫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농사를 지어오는 농민들이다. 지금 오랑캐가 침노하여 나라의 운명은 위기에 들었고 동포들도 도탄에 빠졌다. 우리들은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누구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라. 죽기를 각오해야 살수 있고 적을 이길수 있다. 우리모두 이 한몸바쳐 왜적들을 쳐부시고 고향과 나라를 지켜내자.》

군사들의 의기는 나라위해 한몸 다 바칠 맹세로 충천하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동네 늙은이들은 신규년이 20살때 농민들의 재물을 로략질하러 달려든 왜적들을 보고 밭가운데 박힌 바위를 번쩍 들어던져 7~8명을 깔아죽인 다음부터 바위장군이라고 불리운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대장재목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규년부대가 녕해의 어느 한 령마루에 도착하였을 때 산아래마을에 왜병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적정을 세밀히 알아본 신규년은 불의에 기습하여 왜적들을 요정낼 계획을 세웠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깡그리 잡아치우라는 대장의 령을 받고 세 부대로 나뉘여 쳐들어간 의병들은 왜적들을 몰살시키고 수십명을 붙잡았다.

포로들에게서 적장이 군사 600~700명이 있는 위장산기슭으로 도망쳤다는 말을 들은 신규년은 지체없이 부대를 이끌고 위장산으로 향하였다.

한편 그는 날래고 용감한 의병 몇명을 선발하여 적의 동태를 알아오게 하였다.

적들이 군량부족으로 곤난을 겪고있다는 군사들의 자료를 보고받은 바위장군은 소가죽을 태워 그 냄새로 굶주린 적들을 유인하여 소탕할 묘책을 생각해냈다.

(이리는 고기를 보면 죽을 곳도 모르고 달려드니까.)

이튿날 동틀무렵 위장산의 한 골짜기에서는 소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때마침 솔솔 부는 새벽바람에 실려 골짜기아래로 내려갔다.

예측한대로 굶주린 적들이 골짜기로 기여들었다.

적들의 선봉이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신규년은 돌벼락을 퍼부으라는 령을 내렸다.

의병들은 큰 바위를 내리굴렸다. 바위돌들은 서로 맞부딪쳐 산산이 부서지면서 적들에게로 날아들었다. 하늘에서 돌비가 내리는듯 골짜기안은 뽀얗게 흙먼지로 가득찼다. 쏟아져내리는 돌사태에 적들은 조총도 한번 쏘아볼 사이가 없었다.

허리가 부러진 적, 어깨가 떨어져나간 적, 팔다리가 부서진 적… 적들은 미친듯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라는 령을 내리던 신규년은 그만 적패잔병들이 덩굴속에 숨어서 쏜 총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나는 가망이 없다. 왜적을 무찌르려고 생각했더니… 아, 통분하다.》

위장산공격전투에서 바위장군 신규년은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의분을 누를길 없는 의병들은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노도처럼 내달렸다.

적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조선의 바위장군, 바위부대가 제일 무서워.》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후 불사신인 바위장군에 대한 소문은 왜적들속에서도 널리 퍼졌다.

그때로부터 왜적들은 바위가 많은 산기슭을 지날 때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고 한다.

*　　*　　*

무엇을 노린 군비증강인가

일본방위성이 주체107(2018)년 군사비를 사상최대규모의 5조 2 551억￥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이 방대한 자금의 적지 않은 몫이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 《SM-3 블로크 2A》와 미국산 지상배비형미싸일종합체 《이지스 어셔》의 도입, 다음세대의 레이다개발 등 무장장비현대화에 돌려지게 된다고 하고있다.

문제는 일본이 저들의 군비증강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수 방어적인것이라고 세계여론을 오도하며 잔꾀를 부리는것이다.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차리는 고질적인 악습을 체현하고있는 일본만이 할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과거에 힘이 약했기때문에 패하였다는것이 일본지배층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여 오래전부터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는 군사적역할을 떠들며 군사비를 끊임없이 늘이고 새로운 무장장비개발, 생산 및 구입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한 일본이다. 이로부터 일본《자위대》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침략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이제는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공개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는 정도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법적으로 교전권과 전투력보유가 금지되여있지만 미국의 비호밑에 이미 저들 주변에만 극한되여있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였고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만들어놓은것 등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요격미싸일의 공동생산에 들어가는 한편 일본전역의 10여개 침략기지들에 《패트리오트-3》미싸일을 배비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군사비를 최대로 늘이고 선제공격무기인 미국산 지상배비형미싸일종합체까지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이것이 과연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수 방어적인것이겠는가. 명백히 일본이 미친듯이 벌리는 이 군비증강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화, 해외침략전쟁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그 첫번째 대상이 바로 공화국이다.

일본은 공화국을 침략하는것으로 해외침략의 첫시작을 떼려 하고있으며 과거 이루지 못한 저들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하고있다. 하기에 얼마전에도 일본항공《자위대》는 오끼나와현 나하시에서 《PAC-3》요격미싸일기동전개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렸는가 하면 일본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사자나미》호가 오끼나와주변에서 미해향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요격미싸일들의 목표가 공화국의 탄도로케트라는것을 내놓고 공개하고 또 공화국을 실질적인 적으로 정해놓고 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이다.

공화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비를 대폭 늘이며 재침에 나서려는 일본의 책동은 이처럼 한계점을 넘어서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일본이다. 하지만 일본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일단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이 일어나면 그날이 바로 일본의 모든것이 묵사발이 되는 날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인가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는 지난 조선전쟁때만 해도 조선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눈깜짝할 사이에 일본을 괴멸시킬수 있을뿐아니라 하와이, 미국본토까지도 직격파괴할 보복능력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고도 자기는 무사했고 돈벼락을 맞을 정도로 수지가 맞았던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야 한다고 주장한바가 있다.

일본은 공화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군비증강에 환장이 되여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국철

조선속담 (참견)

- 남의 밥상에 팔고물이 떨어지는 소리한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핀잔조로 이르는 말.

- 남의 참견 말고 제 발등의 불이나 끄라

남이 하는 일에 쓸데없이 아는척하며 참견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잘하라는것을 이르던 말.

- 남의 떡방아에 키를 들고 달려간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함부로 뛰여드는 부질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

- 부조는 못해도 제상은 차지 말라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나 하지 말라는 뜻으로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는것을 이르는 말.

더욱 높아가는 반트럼프기운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세계적인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트럼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일 높이 울려나오는 곳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곳에서는 트럼프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평가가 큰 관심사로 되고있다.

민주당소속의 한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나뿐아니라 공화당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트럼프에게는 《정신의학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일반시민들과 많은 의학자들도 그와 같은 견해에 공감하면서 《몽유병환자》와 같은 트럼프를 더이상 대통령자리에 앉혀둘수 없으며 즉시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트럼프의 측근들도 그를 어린아이취급하듯 하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그에 대해 전하면서 미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와 트위터상에서 거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백악관이 《성인탁아소》로 전락되였다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백악관이 늙다리바보인 트럼프를 어린아이처럼 보호하고 달래며 기르는 곳으로 되였다는것이다.

부대통령까지도 《이제는 어른이 되여야 한다. 당신은 대통령이다.》라고 트럼프를 교양하듯 하였다고 한다.

앞뒤를 가림이 없이 생각나는대로 망탕 말하고 측근들조차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떼버리는 행위를 밥먹듯 하는 트럼프의 언행이 비정상적인 어린아이를 방불케 하기때문이다.

트럼프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미국인들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대상은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헐뜯고 모욕하는 트럼프를 반대해나서는 기운은 미국체육계와 언론계에서도 고조되고있다.

한편 미국잡지 《타임》은 트럼프를 탄핵절차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트럼프의 자서전을 대필하였다는 한 작가는 《트럼프가 년내에 사임》할것이라고 말하여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러한 속에 미국에서 어느 한 잡지의 발행인이 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트럼프를 탄핵으로 이끌 정보에 대한 현상금 1 000만US＄》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탄핵여론에 불을 지폈다.

세상사람들은 수전노인 트럼프가 차라리 이 기회에 1 000만US＄의 현상금을 제 주머니에 넣고 스스로 대통령자리를 내놓는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미국에서만이 아니다.

미국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여러 주권국가들을 마구 헐뜯어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많은 나라들에서 트럼프가 정치인이라기보다 깡패두목, 정치망나니, 파쑈폭군이라는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주민관련행정명령발표, 빠리기후협정탈퇴, 유네스코에서의 탈퇴 등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트럼프의 대내외정책들은 고립적이고 페쇄적인것으로 하여 동맹국들은 물론 많은 나라들로부터 모두매를 맞고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빠리기후협정탈퇴를 두고 《히틀러의 독가스만행을 릉가할 행위》, 《푸른 행성전체를 독가스실화하여 전인류를 멸살하려는 범죄》로 락인하였다.

유네스코총국장은 미국의 유네스코탈퇴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꾸바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트럼프의 예측할수 없는 행위의 일환, 오만성의 극치, 기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작으로 규탄배격하였다.

이밖에도 스위스, 도이췰란드, 카나다, 이란, 로씨야, 에꽈도르, 탄자니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반트럼프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진룡진

희열과 랑만이 넘치는 곳

평양시 통일거리에는 근로자들이 체력단련과 치료체육을 할수 있게 꾸려진 통일거리운동쎈터가 있습니다.

운동쎈터에는 7개의 건강운동실과 6개의 건강회복실, 수중초음파실, 탁구장 등이 있습니다.

건강운동실들에는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종합운동기재 등 60여종에 백수십여대의 운동기재들이 배치되여있어 청춘남녀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초단파치료기, 자외선치료기, 견인기를 비롯한 물리치료 및 미용미안기재들이 갖추어져 있는 건강회복실들은 로인들과 중년사람들이 단골로 리용하는 곳입니다.

주체101(2012)년 10월에 준공된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젊음을 되찾고있습니다.

리명수폭포의 겨울　본사기자 최유성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고 사시장철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천갈래만갈래로 쏟아져내리는 리명수폭포,
폭포의 물안개에 주위는 서리꽃세계를 이루어 볼수록 장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64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